

Modeless Fullmouth Provisionalization

잠실이사랑치과

원현두

대부분의 보철수복에 있어서 임시치아 단계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. 특히 전악 수복을 하는 경우 임시치아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.

임시치아를 수복함으로써 술자는 변화된 구강환경에 대한 환자의 적응정도를 면밀히 살필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의 수정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향후 최종보철물의 제작에 있어서 환자와 술자 그리고 기공사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.

과거 이러한 임시수복물은 예비모형에서 전악 왁스업을 통한 복제모형제작과 이를 이용한 임시 치아를 제작하였었다. 디지털제작방식이 도입된 이후로는 구강스캐너와 캐드캠을 이용하여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시치아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.

본 증례에서는 구강스캐너와 캐드캠을 이용하여 석고모형의 제작 없이 임시치아를 제작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.